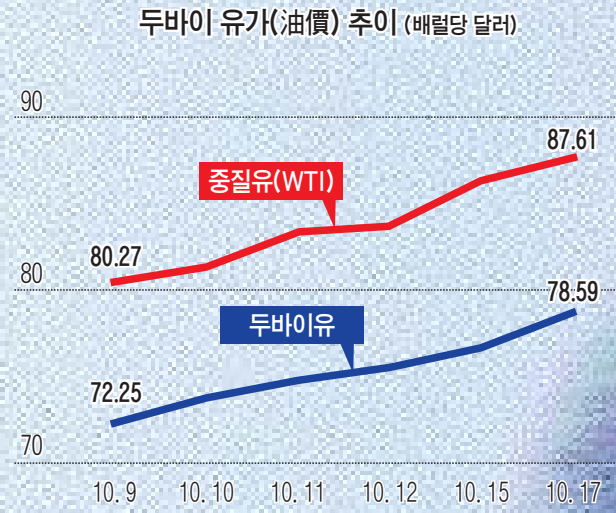


# 유가 폭탄

## 서민들 직격탄



연일 급등하고 있는 '기름값 폭탄'이 물가와 증시는 물론 국내경기 전반에 직격탄을 날리며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와 두바이유가 각각 배럴당 88달러선과 78.5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는 2000선이 붕괴되는 등 연일 폭락세를 연출했다. 유가 상승이 멈추지 않을 경우 내년 경기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유류가격을 필두로 한 소비자 물가의 급등으로 서민생활도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 전세계 비상경보=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국인 중질유(WTI)와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각각 배럴당 88달러선과 78.59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지역의 지정 불안 때문이다.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분리

### 고공행진 증시 '발목'·소비자 물가 급등 내수 약화

### 배럴당 100弗 '초고유가 시대' 현실화에 경제 비상

주의 세력을 겨냥해 그 근거지인 이라크 북부지역을 무력 공격할 방침을 굳히면서 세계 3대 석유 공급지역이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지중해 연안에 공급하는 이 지역의 석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단기간만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석유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수급 자체에 불균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내놓은 석유수요 전망에 따르면 4.4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하루 평균 8천741만 배럴로 수요가 공급을 182만 배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시·서민생활에 충격= 유가 급등이 전장물

품과 그 영향은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71.86포인트(0.51%) 하락하면서 14,000선을 하회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다. 국내에서도 1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1.82포인트(1.09%) 내린 1,983.94로 거래를 마쳐 2,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코스닥지수도 12.51포인트(1.58%) 하락한 780.22로 거래를 마쳤다.

동양증권증권 김주형 애널리스트는 "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과 중국 증시의 과열 우려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류가격을 매개로 전 산업분야에 확산될 물가 상승 우려도 발등의 불이 됐다. 국내 정유사들이

유류제품 가격 결정에 반영하는 싱가포르시장의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해 조만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천6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진호 박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1.7% 가량 상승한다"며 "국제유가 급등이 당장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않겠지만 내년도 평균 유가를 67달러로 전망한 만큼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에도 먹구름=당장 초고유가 문제가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기관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최근 유가 급등요인 가운데 석유시장 이외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직 향후와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 박사는 "최근 유가급등은 지정학적 요인이 커서 향후 어떻게 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유가상승이 내년도 성장 트렌드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홍삼 AI 예방한다

### 충남대 연구팀 사포닌 성분 효과 입증

홍삼이 조류독감(AI·Avian Influenza)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와 KT&G 인삼화학연구소 김영숙 연구원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홍삼 추출물을 30일간 먹인 시험용 쥐 군(群)과 홍삼을 투여하지 않은 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이음, 고(高)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14일간 생존을 관찰한 결과, 비투여군은 감염 8일째 모두 죽었지만 홍삼 투여군은 60%가 생존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삼의 성분인 사포닌 투여군은 50%가 생존했다. H5N1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비투여군 쥐의 폐 조직은 바이러스에 의해 심한 염증성 세포가 나타나고 조직이 침윤(浸潤·염증이 번져 주변 조직이나 세포에 침범)됐으며 간질성 폐렴증상을 보였으나 4일 후부터 죽기 시작해 감염 8일째에는 모두 죽었다.

반면 홍삼 투여군은 약한 염증성 세포와 침윤이 나타나 회복되며 정상 폐와 유사한 조직구조를 보였다. 이 같은 홍삼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테페론 알파와 감마 같은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9일 무주에서 열리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 기름 아껴 쓰라더니...

### 재경부, 업무용 차량중 경차 1대뿐

유류세는 절대 내릴 수 없으니 기름을 아껴쓰라고 강조해온 재정경제부가 최근 10년간 끊임없이 업무용 차량 중 경차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재경부가 구입한 업무용 차량은 모두 17대이며 이중 경차는 마티즈(796cc) 1대로 집계됐다.

배기량이 3천cc가 넘는 차량은 2대였고 2천cc 이상 3천cc 미만 10대, 1천cc 이상 2천cc 미만 4대, 1천cc 미만 1대 등으로 평균 배기량은 2천420cc에 달했다.

장관용으로는 1999년 8월 다이너스티(2천497cc)를 구입했으며 2003년 4월에 에쿠스(3천497cc)를 구입했다가 2년만인 2005년 3월에 다시 배기량이 높은 에쿠스(3천778cc)로 바꿨다. 차량용 차량도 2002년 3월 임대한 체어맨(2천295cc)을 1년만 만인 2003년 10월 배기량이 높은 체어맨(2천799cc)으로 교체했다. /연합뉴스

## "은행 서민금융 역할 확대하라"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촉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시중은행이 서민금융 분야에서 역할 확대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실례니얼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등 서민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제도권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넣어 현재 수조원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서민금융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이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등 자회사를 설립해 서민 대상의 신용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금융사들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일부 은행권 금융지주회사가 캐피탈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상통화 따라해보세요" SK텔레콤이 영상통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우리 버스로 만든 'T LIVE BOX'가 17일 서울 을지로 T타워 앞에서 시작된 가운데 길을 가던 시민들이 모델들의 영상통화 화법 시연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산 철강재 국내시장 급속 잠식

### 수입량의 53% 차지... KS 규격 획득 의무화 해야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매년 급속도로 늘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7일 국정감사에서 조영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2003년 182만t으로 전체 철강재 수입량의 11.6%를 차지했지만 이후 매년 10% 포인트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올해 들어서 7월까지만 832만t이 들어와 철강재 수입량의 52.7%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 흑자를 유지했던 대우 철강 무역수지는 지난해 14억9천만 달러 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해 들어 7월까지만 29억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열산자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열

뿐 아니라 공급여력이 충분한 품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철강 사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가격과 물량 등 수입정보를 통관 30일 전부터 온라인상에 입력해 중국과의 양자 협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금으로 불량, 규격미달 제품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근과 H형강 등의 국가표준(KS) 규격 획득 의무화를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는 "KS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일부 중국산 저급 철강재 수입의 감소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신용불량자가 금융사 임원

### 최근 3년간 37개사서 47건 발생

신용불량자가 은행 단위조합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임되는 등 상호금융사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돼 업무를 수행하다 뒤늦게 결격사유가 적발돼 해임된 사례가 37개 금융사에서 4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협의 경우 18개 단위조합에서 모두 28명이 적발돼 가장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사에서 신용불량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다 적발된 경우가 14건이나 됐다. 나머지 14명은 조합원 가입 요건, 출자금 요건 등의 문제로 해임됐다.

18개 농업 단위조합에서도 18명이 적발됐다. 집행유예 등 불법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임원 당선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인가가 취소된 다른 저축은행 감사 출신을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뒤늦게 해임한 사례가 한건 있었다. /연합뉴스

## 쌀 소득보전금 줄줄 샌다

### 땅 빌려준 지주가 부당 신청 등 1,658건 적발

쌀 재배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부가 국회 농허수외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가운데 '부당 신청'으로 적발된 사례는 967건(619농가)에 달했다. 신청액으로는 1억4천730만원 규모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

지만 모두 691건(681농가), 3천9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였다.

지역별로는 ▲경남 136건 5천400만원 ▲충남 109건 4천580만원 ▲경북 653건 3천390만원 ▲전남 27건 480만원 ▲전북 20건 410만원 ▲인천 20건 303만원 ▲충북 2건 150만원 등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남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샘플 성격으로 이 지역을 골라 쌀 직불금 부당 지급에 관한 집중 감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대대적 특별감사를 벌인 경상북도의 부당신청 적발 건수가 2005년~2006년산 전체 적발의 67%를 차지한 사실로 미뤄, 전국적으로 실제 쌀 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강화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이런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경련, 정부규제 5천건중 1,664건 개선·폐지 건의

## 한국 여전히 '규제 공화국'

"한국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종합순위 1위국으로 만들어보자는 욕심도 규제개혁 과제를 연구했습니다"만 국내 규제를 최선을 다해 폐지해도 그 순위는 15위에 올라가는 것에 그쳤습니다."

17일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 김중석 원장은 국내 규제 실태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했다.

조사 결과는 정부 규제 5천25개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664건이 폐지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지적돼 현재 정부들이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불구

하고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이번엔 총 등록 규제 5천여건 중 폐지 516건, 개선 1천114건을 건의했다. 규제 3건 중 1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의 정부 등록 규제 5천25건은 지난해말의 8천여건에 비해 3천여건이 감소한 것이나 이는 수치상의 계산일 뿐 실제 규제건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규제 건수가 3천여개 감소한 것은 규제분류 기준을 변경한 결과일 뿐

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규제는 올해 5월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될 뿐 미등록 규제나 행정규제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가안보 관련 규제, 입법부·사법부·합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관 규제, 조세 관련 규제는 제외됐다.

특히 최근에는 의원 입법에 의한 규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은 현재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에 의한 규제 건수가 약 2대 8로 의원 입법이 전체 입법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전남대학교병원	장래업무 담당 모집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62-220-5022
㈜동북	영업 및 영업관리부서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2-3215-5032
여수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임상병리사 모집공고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61-640-7152
신원회화	경리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62-944-8485
한국국제대미널	Finance Planning Assistant	대졸/경력무관	2600~2800	10/19	061-798-1735
메트라이프(빛고을)	POSCO철강/자동차관련 ERP프로젝트수행/웹디자인	대졸/경력무관	3600~3800	10/22	054-223-2323
메트라이프(빛고을)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춘 재무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228-1137
에네스건설	전산관리(재무회계, 네트워킹관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572-5500
휴먼전자	조립관리업무 가스관련 자격소지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2200~2400	10/23	062-600-7513
ING생명	TM센터 업무지원(TOS) 모집	대졸/경력무관	2600~2800	10/23	062-519-2015
동원홀딩스	의식사업부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5	062-953-4059
㈜금성빌	경리/회계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5	062-945-1114
빈폴랜드	판매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30	062-360-1652
매직서비스	동양매직 서비스 센터 광주·목포 협력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31	062-524-3131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